

우리가 만드는 해설 성서-

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말 해설 성서의 작성과 편집을 위한 제안

왕대일*

1. 우리말 해설 성서를 만들자

해설 성서의 역사는 중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책의 페이지마다 마소라 본문과 타르굼을 기록한 본문으로 실은 뒤 그 여백에다가 저명한 유대 랍비들의 주석과 해설을 실었던 유대교의 “큰 성서”(미크라오트 그돌로트)나, 성서 본문의 여백에 간단한 해설, 복음서 저자에 대한 소개를 써놓고 정경의 순서, 병행구절 목록 등을 첨부한 다음 예수의 어록을 붉은 색 잉크로 표시해서 호화 장정 형식으로 묶은 사복음서 같은 것들이 해설 성서의 출발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서를 심각하게 읽도록 돕는 장치는 이보다 훨씬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유대교의 마소라 본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해설 성서였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따지고 보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시리즈나 우리말 관주(貫珠) 성서 등도 해설 성서의 범주에 든다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는 모두 독자의 독서를 --그것이 학문적이든, 비평적이든, 연구용이든, 경건 생활을 위한 것이든-- 돕는 일정한 장치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서의 우리말 번역은 발췌 번역부터 따져 본다면 그 역사가 17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¹⁾ 우리말 성서 번역의 역사가 이미 200년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이다. 거기에 비할 때 우리말 해설 성서의 역사는 미천하기 짝이 없다. 관주 성서의 경우 1910년에 나온 『부표 관주 신약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80), 『해설·관주 성경전서』(1997)에 이르고 있으나,²⁾ 성서 본문의 난외주나 난하주에 관주 형식의 성구를 소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신구약개론, 성서해설, 삽화, 연대 등의 머리말을 수록하면서 총론, 사진, 지리, 성구, 목록, 지도, 화보, 도표 등을 부록으로 제시한 본격적인 해설 성서는 1965년에 와서야 등장하게 된다.³⁾ 우리 나라 개신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설 성서는 대부분 1961년 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대한성서공회)을 그 기본 본문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 그 본문에 대한 해설 성서의 역사는 빨라도 1961년 이후부터가 된다.⁴⁾ 우리 교계에 해설 성서가 등장하게 된 때가 불과 몇 십 년 전이라는 것이다.

* 감신대 교수, 구약학

1) 대한성서공회가 2001년에 출간한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서두에 실린 “우리말 번역 성서의 역사”(pp. 22-29)가 이 점을 밝혀주고 있다. 번역 초창기에 시도된 발췌 번역에 속하는 성경직해광익(聖經直解廣益)의 경우 최초 필사본은 179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2) *Ibid.*, 26-27.

3) 이 책(『성경원문연구』 제 9호, pp. 7-40)에 실린 민영진, “우리말 해설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를 참조하라. 1965년에 출판된 장시화 편, 『백과 신약전서』(서울: 세계복음화운동본부출판부, 1965)가 우리 나라 개신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해설 성서로 간주될 수 있다.

4) *Ibid.*, 3. 이것은 개신교 계통에서 나온 것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제가톨릭성서공회, 서강대학교신학연구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나온 해설 성서에 대해서는 민영진 박사의 윗글, “우리말 해설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pp. 10-23)를 참조하라. 가톨릭 계통의 해설 성서는 대체로 성서의 역사비평적 해석을 수용하고 있다. 이 점이 개신교 계통의 해설 성서들과는 뚜렷하게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계에 나온 해설 성서는 대부분 외국의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들이다. 이 책 『성경원문연구』 제9호에 실린 민영진 박사의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1960-1990년 사이 우리 나라에서 출판된 개신교회용 해설 성서는 신약이나 신구약 합본에 대한 해설 성서를 합쳐 대략 51종이 된다.⁵⁾ 영미권에서 출판된 영어 성서에 대한 스터디 바이블이 1995년 현재 51개 가량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⁶⁾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해설 성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숫자상의 비교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계에 해설 성서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들은 대부분 익명(匿名)으로, 차명(借名)으로, 허명(虛名)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필자가 누구인지, 번역자가 누구인지가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가령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애독하는 해설 성서 가운데 『오픈성경』이 있다.⁷⁾ 그러나 이 책은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참고해서 이처럼 방대한 작업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그 머리말에 “성서 해석상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저명한 신구약 학자 세 분에게 감수를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 책 어디에도 집필자나 번역자나 번역 대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큰 문제이다. 우리에게 있는 해설 성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은 정녕 득보다는 해(害)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 계통에서 나온 해설 성서들은 대부분 우리말 『개역 한글판』에다가 해설 노트를 첨가한 것들이다. 여러 다른 번역판을 해설의 기본 본문으로 삼은 해설 성서들이 여러 개가 되어서 우리말 해설 성서의 수가 그렇게 많아진 것이 아니다. 개신교 계통의 해설 성서는 거의 대부분 『개역 한글판』을 기본 본문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이런 저런 해설 노트를 단 것들이다. 그 해설 노트마저도 해설 성서간에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책 제목과 그 책을 펴낸 출판사 이름뿐이다. 영어로 된 51종의 해설 성서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 번역판들(versions)에 대한 해설 성서인 것을 감안할 때 『개역 한글판』이라는 본문에다가 해설 노트를 단 해설 성서가 50종이 넘는다는 사실은 가히 세계 신기록 감이다.

이 점에서는 최근 대한성서공회가 펴낸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 1997년』이나 『굿뉴스 스터디바이블, 2001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이 두 해설 성서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 개신교계에 나온 해설 성서들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⁸⁾ 필자는 우리 나라 개신교인들이 이 두 개의 해설 성서를 참으로 진지하게 음미해 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두 권도 『개역 한글판』을 --『굿뉴스 스터디바이블』의 경우에는 『개역 개정판』을-- 기본 본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 보였던 여타 해설 성서들과 그 기본 골격이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 교인들이 두루 읽고 있는 해설 성서들은 기본적으로 성서 본문이, 그 문단이나 글자나 어구 등이 무슨 뜻인지를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해설의 일차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나마도 이들 해설 성서가 다루고 있는 본문 해석의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51종이 넘는 해설 성서가 우리에게 소개되었으나 그 모두가 특색 없는 책들이 되고 말았다. 왜 이다지도 비슷비슷한 해설 성서들이 우리 앞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해설 성

5) 여기에 대해서는 민영진 박사의 윗글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특히 pp. 9-22)를 참조하라.

6) "Review of Study Bibles [tables],"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1(1995), 72, 74, 76.

7) 오픈성경 편찬위원회 편, 『오픈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8). 원래 *The Open Bible* 이라는 해설 성서는 1984년 미국의 Thomas Nelson 출판사가 펴냈었다.

8)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책에 실린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터디바이블』 - 신약을 중심으로-”(pp. 56-68)와,王大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터디바이블』 - 구약을 중심으로-”(pp 41-55)를 보라.

서가 거둔 상업적 성공이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출판사의 상업적 성공만을 위해서 해설 성서가 졸속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학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독자적으로 우리말 해설 성서를 펴내야 할 차례이다. 어떤 출판사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말로, 우리 정서로, 우리 삶으로 온전히 해설해 주기 위해서이다. 『개역 한글판』을 비롯해서, 『공동번역』이나 『표준새번역』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표준새번역 개정판』을 기본 본문으로 삼아 우리가 집필한 해설 성서를 펴내야 한다. 말씀에 대한 뜻풀이 외에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개의 성서 본문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해설해주어야 한다. 그 책임이 우리 성서학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출판사들에게 있다.

2. 무엇을 다룰 것인가? 무엇을 다루지 않아야 하는가?

해설 성서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해설 성서에서는 무엇이 다루어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설 성서의 집필자나 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해설 성서가 독자의 독서를 돕는 장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설 성서는 독자의 눈 높이나 보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다루게 된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설 성서를 기획하고 제작하려면 먼저 충분한 사전 의견 조사(survey)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가령, 교회, 교단 등과 협의해서 예측 가능한 독자 집단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설문 조사 방식으로 독자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를 미리 물은 다음 그 결과를 해설 성서를 편집해 가는 과정 중에 수렴하자는 것이다.

설문조사가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꼭 그런 설문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방대한 신구약성서의 어디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해설이 수록되어야 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가 자못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설문조사보다는 그 동안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서를 번역한 사람들이 성서의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들었던 질문이나 의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수렴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일 수 있다. 아니면 성서 독자들이 신구약성서에서 오해하고 있다고 파악되는 구절이나, 난해하게 느끼는 구절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해설 성서를 편집하는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설 성서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 가장 첫째로 다룰 것은 해설 노트이다. 해설 성서의 편집과 디자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해설과 안내, 설명과 주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해설 노트이다. 난외주든, 난하주든, 본문 안에 들여짜기 식으로 첨부해 놓은 주든, 해설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부분은 해설 노트이다. 이런 해설 노트가 있기에 해설 성서는 참고서(reference book)가 된다. 이 때 해설 성서의 독자들은 해설 노트의 내용을 “그냥 수용”(undiscriminating acceptance)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만큼 해설 노트는 해설 성서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해설 노트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해설 노트의 기본적인 의도는 독자들이 텍스트의 전체적인 메시지나 그 세부적인 구절, 단어, 어구 등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의 문학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등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끊임 없이 성서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주제를 분명하게 표시해 주어야 한다. 해설 성서의 노트가 다루어야 할 사항은 대략 크게 세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텍스트의 문학적인 특징이다. 말과 글로서의 특징을 소개해야 한다. 이 때 거시적인 차원에서 텍스트의 구조(골격)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다보면 성서 본문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성서 독자들을 크게 돕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성서 텍스트의 거대 구조를 무시하기에 우리 독자들이 성서 본문을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둘째는 텍스트 안에 등장하는 어떤 개념이나 사항들을 밝혀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해설 성서와 카멘타리(commentary)가 결코 똑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아가 해설 성서가 곧장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설교 집(集)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셋째는 텍스트의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때에도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자의 배경을 말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텍스트에 담긴 이야기의 배경을 말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책의 배경을 말해야 하는 것인가?

이 세 범주에 대한 검토는 해설 성서가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데 중요한 갖대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설 노트가 무엇을 다루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확인이다. 유안 프라이(Euan Fry)의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 논의에 도움을 준다.⁹⁾ 프라이는 해설 성서의 노트들을 읽으면서 생기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다. 하나는 해설 성서의 노트가 성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말을 바꿔서 반복하고 마는 경우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예를 들어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마태복음 9:16에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라는 구절 밑에 다음과 같은 난하주가 있다.

(본문) “생베 조각을 낚은 곳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하게 됨이요”

(난하주) “수축시키지 않고 이은 천 조각은 옷을 처음 빨래할 때 수축되어 그 옷을 망가뜨리게 된다.”

해설 노트는 말 그대로 해설이어야 한다. 본문의 소리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되풀이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본문의 뜻이 그렇게 애매하지 않다면 해설 성서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해설 노트는 어렵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지나칠 수 있는 성서 본문을 독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는 해설 노트가 성서 본문을 “설교조로”(sermonizing) 바꿔서 이야기 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서 본문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보다는 소위 영적인 가르침을 제시해보고자 서두르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마태복음 19:28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구절 밑에 다음과 같은 난하주가 첨부되어 있다.

마 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난하주. 예수가 인류의 심판자요 통치자로서 다시 올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의 고난을 나누었다면 그의 승리 또한 나눌 것이다(눅 22:28-30).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다.

이 해설 노트에서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다”는 결론적 해설이다. 보기에 따라서 이런 해설은 지극히 정당한 해설로 비쳐질 수 있다. 아니면 이른바 “은혜로운” 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해설은 정녕 텍스트의 기본적인 뜻보다 한 발 앞

9) Euan Fry, "Study Bibles- What's New?" *Unpublished Paper for United Bible Societies Triennial Translational Workshop* (May, 1991), 3-4.

서 나간 해설이다. 성서 본문에 대한 영적, 은유적, 암시적, 알레고리(allegory)적 해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적, 은유적, 상징적 해설 노트는 우리가 진정 피해야 할 해설 방식이다.

해설 노트 다음에 해설 성서가 두 번째로 다루어야 할 것은 성서 본문에 대한 개론적인 안내와 성서 본문의 단락들을 구조적으로 소개하는 항목(표제, 문단, 단락 등에 대한 제목이나 안내)의 배치이다. 이 때 성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보조적인 자료들을 머리말이나 부록 등에 첨부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론에 해당되는 서론적인 안내이다. 해설 성서의 개론이나 본문의 단락들에 대한 제목 등은 해설 노트와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성서의 개론은 신학교 교과서를 요약해 놓은 듯한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설 성서에 수록된 신구약 개론을 집필하는 자의 학문적 경향이 여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설 성서가 다루는 신구약에 대한 개론이 성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서의 전반적인 본질을 알게 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성서 66권 각 책에 대한 소개나 안내로 이어져서 성서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영봉 교수가 해설 성서에 첨부되는 개론은 학문적 개론서의 축소판이 아니라 “독자의 독서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독서 안내’ (reading guide)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¹⁰⁾

3. 해설 성서는 주석이나 카멘타리(commentary)와는 달라야 한다

해설 성서는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책이 아니다. 성서 본문에 대한 주석서나 카멘타리처럼 서론부터 결론에 이르는 일정한 흐름을 해설 성서는 가질 수 없다. 해설 성서의 기본적인 모습은 “참고서”(a reference book)이다. 우리는 이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으로 카멘타리는 성서 본문에 대한 서론적인 문제로 시작한다. 본문의 저자, 연대, 의도, 텍스트의 보존, 진정성(authenticity), 텍스트 해석의 역사, 배경, 내용 개요 등이 이런 서론에서 다루어진다. 카멘타리에는 어떤 본문 구절의 해석이나 어떤 주제에 관련된 해석의 문제를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난이 있다. 그러면서 카멘타리는 성서 본문의 모든 절(verse)을 하나씩 다 다루고 있다. 이런 틀 속에서 카멘타리는 절과 구절과 단어의 의미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어의 의미와 그 뜻이 어떤 것인지가 소개되고, 본문에 나타난 이미지나 사건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해설이나 설명을 제공한다. 이 때 성서 본문의 어휘에 대한 사려 깊은 분석이 첨부됨은 물론이다.

해설 성서는 카멘타리가 하는 이 모든 작업을 다 다룰 수는 없다. 왜 그런가? 우선 그럴만한 공간(여백)이 없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설 성서가 카멘타리는 아니기 때문이다.¹¹⁾ 해설 성서는 카멘타리처럼 해설이나 논설, 어구풀이 등에 할애할 만한 많은 공간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공간상의 제약은 해설 성서가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를 결정할 때 그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설 성서와 카멘타리를 구별해야 한다. 해설 성서는 카멘타리처럼 성서 본문에 대한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모조리 다 밝힐 수 없다. 해설 성서에서 카멘타리 식의 정보와 자료를 모두 기대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비현실적이다.

해설 성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은 꼭 해명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짚막한 서술이다. 다

10) 이 책에 실린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pp. 69-82)를 참조하라.

11) Armando J. Levoratti, "Some Difficulties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a Study Bible," *AJL-AMRETCO*- (May, 1990), 1-14.

시 말해 해설 성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최소한 몇 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해설 성서의 황금률과도 같다.¹²⁾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설 성서가 커멘타리와의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첫째, 문제가 되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설 노트를 작성해 가는 것이다. 구약 본문 안에, 신약 본문 안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되는 기사, 숫자, 정보 등에 대한 설명이 다루어져야 한다. 또 성서 독자들이 성서를 읽어가면서 느끼거나 발견할 수 있는 어려운 구절들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¹³⁾ 이런 문제는 성서 안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구약의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사이에는 인물이나, 사건, 숫자적인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록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예, 삼하 8:4와 대상 18:4; 삼하 10:18과 대상 19:18; 삼하 24:1과 대상 21:1; 삼하 24:9와 대상 21:5; 왕상 4:26과 대하 9:25; 비교, 스 2:3-64와 느 7:8-66). 해설 노트는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설은 정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나치게 본문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풀이할 것이 아니라, 또는 성서 본문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굳이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설혹 우리가 그 답을 다 모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해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그런 문제의 해결에 어느 하나의 해설을 정답처럼 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몇 가지 해설을 동시에 제공하고 그 취사 선택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놓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¹⁴⁾

해설 성서는 텍스트의 중요한 의미를 풀이해 주어야 한다. 또 텍스트가 불분명하거나 애매할 때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보충설명도 해 주어야 한다.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독자들의 오해를 살만한 본문 상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하거나 가능한 대안(alternative)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필자는 하나 더 첨부해서 우리 해설 성서의 노트에 번역본(version)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본문상의 문제나, 번역상의 문제도 제대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해설 성서는 말 그대로 성서를 해설하는 책이다. 성서는 하나이지만, 성서를 해설하는 책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신앙공동체의 역사를 통시(通時)적으로 더듬어 볼 때 제일 크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신앙공동체가 정경으로 사용한 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사실이다. 주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 공동체가 정경으로 삼았던 셉투아진트(LXX)부터 시작해서 아랍어 타르굼, 페쉬타, 라틴어 성서에 이르기까지 현대어 이전의 번역 성서 만해도 정경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 현재 우리는 이런 모든 성서들을 공시(共時)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여러 성서들이 모두 다 신앙공동체에서 각각 정경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수용되고 고백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옛 번역 성서들의 본문이 원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번역본들도 서로 다르다. 이 성서들이 모두 각자의 신앙공동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졌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독(異讀)이라는 본문상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해설 성서에는 바로 이 서로 다른 번역본이 일으키고 있는 본문 비평적인 문제가 쉬운 말로 풀이되고 밝혀져야 한다. 우리말 성서도 어차피 번역성서의 대열에 끼여 있는 까닭이다. 그럴 경우 해설 성서가 성서 본문에다가 제시하는 여러 대안적인 설명과 함께 해설 성서의 노트는 풍요한 정보를 성서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창이 될 수 있을

12) *Ibid.*, 6.

13)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에 수록된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pp. 24-34)를 보라. 또 민영진, 『성경 바로 읽기』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9)를 참조하라.

14) 비교, John Ellington, "Study Bibles and the Conservative Audience," *Unpublished Paper for UBS Translation Workshop* (1987), 1-25, 특히 21-22.

것이다.

4. 독자를 위한 해설 성서를 만들어야 한다

해설 성서의 근본적인 의도는 독자들이 성서를 이해하는 일을 돕는 데 있다. 해설 성서의 설명과 노트에 제공된 정보는 반복되거나 길게 장황해질 필요는 없다. 해설 노트는 독자들이 성서 본문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해설 노트의 집필자는 독자들을 성서의 세계관으로 초대하는 초청자의 역할을 맡으면 된다.

해설 성서를 구성하려고 할 때 꼼꼼 생각해야 할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책이 독자를 위한 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해설 성서들이 있다. 해설 성서는 독자를 위한 책이다. 독자는 여러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연령별, 성별, 계층별, 직업별, 신앙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회자를 위한 해설 성서가 있을 수 있고, 평신도를 위한 해설 성서가 있을 수 있다. 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가 있을 수 있고, 타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보다 해설 성서다운 해설 성서를 기획, 출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독자층을 위한 해설 성서를 제작할 것인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먼저 결정되어야 독자의 눈 높이와 독자의 보폭 등에 따라서 해설 성서가 무엇을 해설해야 할지, 해설 성서의 항목(agenda)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해설 성서들은 성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에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다. 처음 성서를 읽어 가는 자들은 어떤 질문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것인가를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교리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성서 본문 자체 내에서 발견되는 기록상의 차이이거나, 아니면 독자의 상식(독자의 세계관)과 어긋나는 성서적 보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창세기 2:17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아담이 정작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을 저질렀지만(창 3:7), 그는 당장 죽지 않았다. 그는 도리어 930세를 살았다(창 5:5). 여기에서 독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 죽게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이나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아무런 해설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읽고 있는 보수적인 입장의 해설 성서 중 하나인 『뉴 톰슨 관주 주석 성경』(성서교재간행사, 1985)에는 창세기 2:17의 난하주에 다음과 같은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방종에 떨어져 거룩한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리라는 경고요 대비라고 보아야 한다.¹⁵⁾

『뉴 톰슨 관주 주석 성경』의 난하주는 창세기 2:17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았다. 이것은 보수적인 성서해석이 대체로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를 소중하게 갈무리하는 경향을 벗어나고 있다. 이

15) 『뉴 톰슨 관주 주석 성경』은 1983년 미국의 존더반(Zondervan) 출판사에서 나온 *The Thompson Chain-Reference Bible*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실제 대본에 있어서는 이 책의 머리말에도 나와 있듯이 *The Thompson Chain-Reference Bible*과 *The Open Bible*(Thomas Nelson Publishers, 1984)을 주대본으로 관주와 주제별 항목을 정리하고, 그외 외국의 보수적인 주석과 성경 6종, 그리고 8종에 이르는 국내의 저명 신학자, 목회자가 쓴 주석서와 성구사전 등을 해설의 대본으로 참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 방대한 해설 성서에도 지금까지 나온 다른 해설 성서들처럼 누가, 어느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번역하였는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해설 성서는 창세기 2:17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오래 살았다는 기사 사이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2:17을 이른바 “영적으로”(spiritualized) 읽었다. 이런 방식의 해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해설 노트일까라는 질문은 여기에서 필자가 다루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필자는 이미 앞에서 해설 노트의 성격을 규정할 때 소위 영적인 해석이나 우화적인 해석은 해설 성서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창세기 2:17에 대한 이런 식의 설명이 성서 본문의 뜻을 참으로 잘 대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해설 성서는 창세기 2:17과 창세기 3:7; 5:5를 더불어 읽은 독자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예측하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해설 노트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독자를 위한 해설 성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만약 이 해설 성서가 초신자 계층을 겨냥한 것이라면, 그 해설 성서는 독자층과 독자들의 눈 높이의 고저(高低)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나온 *The Learning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 대한 평가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¹⁶⁾

독자를 위한 해설 성서를 기획할 때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만을 보아 왔다. 그러나 보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비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도 만들어서 배포해야 한다.¹⁷⁾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비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가 만들어졌다. 우리 나라 상황에서도 불교도를 위한 해설 성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타종교와 대화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설 성서나, 비종교인들을 위한 해설 성서도 필요하다면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케넷 토마스(Kenneth J. Thomas)의 제안은 이 점에서 우리 눈길을 끈다.¹⁸⁾

케넷 토마스는 비기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의 제작에는 다음 몇 단계가 요청된다고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독교를 처음으로 알게 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쉽게 관심을 갖거나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성서 본문이나 성구를 선별해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건강, 평화, 축복, 용서, 정의 등을 다룬 본문들이 이런 단계에서 적합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의 성서에 적극 반응하는 자들을 더 잘 양육하기 위한 조치로 그 독자의 배경을 고려하여 성서적 개념을 파악하게 하는 성서 본문들을 의도적으로 구상해서 편집한다. 유일신 하나님, 율법, 심판, 은총, 용서, 사랑 등의 성서적 개념이나 하나님, 창조, 계시, 영생 등이 이 단계에서 소개하기에 적당하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비로소 성서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독자들을 위한 스터디 노트를 첨부한 성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케넷 토마스는 해설 성서가 성서에 질문을 던지는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묻고, 어떤 대답을 들어야 했으며, 그 뒤 무엇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혔는지를 아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이 단계에서 케넷 토마스는 사복음서에 대한 해설 성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본다. 타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깊이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전 성서에 대한 해설 성서를 공부하고 익히게 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인들의 세계관이다. 케넷 토마스의 말을 빌리면 타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느끼는 거리감은 옛 텍스트와 그들이 살고 있는 현대적

16) 이 책에 실린 소기천 교수의 “말씀과 삶의 조화: 『러닝 바이블-현대인을 위한 영어 성경』은 어떤 책인가”(pp.97-105)를 보라.

17) 이 책(『성경원문연구』 제9호)에 실린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pp. 38-39)를 참조하라.

18) 케넷 토마스(Kenneth J. Thomas)는 UBS의 번역 컨설턴트(consultant)이다. Kenneth J. Thomas, “Study Bibles for Religious Audiences,” *The Bible Translator* 47/2 (1996), 207-211.

인 상황 사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타종교인들이 기독교와 성서에 대해서 갖는 거리감은 성서의 세계관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다르다고 하는데서 오는 거리감이라는 것이다.¹⁹⁾ 단순히 기독교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다른 종교인들에게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의 세계관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어서 기독교적인 개념과 용어를 설명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타종교인을 위한 해설 성서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비판을 변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관심사를 활용해서 성서를 해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타종교인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지를 조사한 후, 거기에 근거해서 해설 성서가 다루어야 할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해설 성서의 노트나 설명은 평이하고 쉽고 정확해야 한다. 전문적인 용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적당한 말로 풀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서도 해설 성서의 노트가 모든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수용할 만한 정보이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제작해야 할 해설 성서에는 이미 성서와 기독교에 대한 신앙과 지식을 상당한 정도로 갖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예를 들면, ‘어떻게 성경공부를 해야 할까’와 같은 제목으로 성경공부 방식을 돕는 에세이를 제공하거나, 히브리 시의 특성에 대한 소개,²⁰⁾ 복음서의 문학적 유형에 대한 소개, 성서의 “역사 지리”(Historical Geography)와 고고학적 자료 등에 대한 해설을 소개함으로써 성경공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upgrade) 해설 성서도 만들어 보아야 한다.

대개 해설 성서는 문단에 대한 소개 외에도 난외주나 난하주 형식으로 첨부하는 노트 외에 다음과 같은 설명들을 수록하게 된다. 개론, 어구사전, 찾아보기, 관주, 어휘 해설 사전, 지도, 도표, 특별한 논문이나 해설, 외경에 대한 안내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해설문을 소개하는 방식도 반드시 연역적인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독자들이 성서 본문의 어느 대목을 읽다가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궁금증을 통해서 귀납법적 형식으로 그와 관련된 해설을 제공하는 방식도 유효하리라고 본다. 가령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빠졌을 때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인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합성을 지르게 되는 대목(단 3:19-25) 사이에서 외경에 나오는 “다니엘 추가서”의 기도문을 소개해 보는 방식은 어떨까? 룻기나 에스더서 뒤에 유딧 이야기를 배열해서 읽게 해 보면 어떨까?

연역적인 방식으로 해설 노트를 진행해 가는 해설 성서는 대체로 “해석적인 노트”(interpretative notes)를 독자들에게 미리 제공하는 일에 충실하다. 그러나 모든 해설 성서가 이런 식을 따라야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설 성서를 통해서 개인이나 그룹의 성경공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려는 독자들을 위해서라면, 성경공부를 위한 배경적인 자료만을 알도록 한 후, 각자가 성서본문을 읽고 공부해가면서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노트를 뒤에 가서 제공해도 되리라고 본다.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면 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취하든, 기억할 것은 해설 성서의 노트나 자료는 정녕 “독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19) *Ibid.*, 210.

20) 류호준 교수는 이 책에 실린 “『현대영어성경』 본문에 기초한 스티디 바이블(러닝 바이블)에 대한 소개 및 평가”(pp. 83-96)에서 *The Learning Bible*의 기본 본문인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 히브리 시의 특징을 살려 번역하여 인쇄한 것을 지적하면서 장차 우리말 성서(우리말 해설 성서)도 이 점을 적극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5. 해설 성서는 교회를 위한 봉사이다

해설 성서는 오랜 준비와 세심한 주의, 철저한 저술과 편집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과학적인 작업이다. 그렇지만 해설 성서가 존재하는 자리는 교회를 위한 봉사이다. 해설 성서가 단순히 그것을 기획하고 집필한 출판사나 저자의 것이 아니라, 또는 단순히 그것을 읽고 수용하는 독자의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해설 성서가 우리 교회사에서 차지하게 될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해설 성서는 전문적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동시에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해설 성서를 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될 신학적인 문제, 성서해석학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 책에 수록된 김창락 교수와 김영봉 교수의 글이 바로 이런 문제를 적극 제시하고 있다. 김창락 교수는 우선 이렇게 말한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이 신약성서의 각 문서에 대하여 개론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참으로 소중하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역사비평적 연구의 공통적 결과를 수용하여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합치한다. 이 둘에서 우리는 나머지 모든 해설 성서가 성서의 각 문서에 대하여 제시한 정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현재 형태의 모세 오경을 형성한 배후에 이른바 J, E, P, D라고 하는 자료층이 존재했다는 것, 현재 형태의 이사야서는 약 400년에 걸쳐서 쌓인 여러 전승층들의 편집으로 형성되었다는 것, 공관복음서의 성립에 대하여 이른바 두 자료설을 인정하는 것, 바울의 서신을 진정 서신과 후기 바울 서신으로 구분하는 것 등등이다. 성서에 대한 역사비평적 연구의 불모 지대인 우리 나라의 성서 연구의 풍토에 이 두 해설 성서가 참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²¹⁾

물론 김창락 교수는 어떤 입장에서 성서를 해석해야 바람직한 해설 성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다만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 두 권이 지금까지 출판된 다른 해설 성서에 비해서 우리 나라의 성서 연구 풍토에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 평가 이면에는 성서의 역사비평적 해석이 해설 성서 집필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각인되어 있다. 한편 김영봉 교수는

문제는 한국판 해설 성서를 내려 할 경우에 더 심각할 수 있다. 성서를 번역하는 데에도 신학적 입장을 숨길 수 없었다면, 성서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하다. 그렇다면, 기획하는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인가?보수적 입장을 택할 경우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비판 이전의 시대로 퇴보하는 일이 되므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반면, 진보적 입장을 택할 경우, 교회의 신앙을 해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보수적 성향의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우세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두고 볼 때, 이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런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두 종류의 해설 성서를 기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그러므로 독자에게 어느 하나를 강요하지 말고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문제를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적 입장을 공표한 해설 성서와 보수적 입장을 공표한 해설 성서를 따로 뉘뉘로 써, 신학적 다양성을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제안이다...²²⁾

21) 이 책에 실린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pp. 56-68)를 보라.

22) 이 책에 실린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타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pp. 69-82)를 보라.

위에 언급한 이 두 교수의 평가와 제안은 해설 성서를 제작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해설 성서는 말 그대로 성서를 해설하는 책이다. 성서를 해설하는 책은 해설하는 자의 관점과 함께 그 해설을 듣는 독자들의 반응을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성서해석이라는 과제 앞에서 우리 교계가, 우리 학계가 보수적인 진영과 진보적인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지 않는다. 다만 성서해석의 자리를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태도를 우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비(非)성서적이지 않다. 누구도 반(反)그리스도적이지 않다. 역사비평 이후에 적극 진행되어 온 성서해석의 공시적(共時的), 무시적(無時的), 반시적(反時的) 경향은²³⁾ 통시적(通時的) 전통의 성서해석과 함께 오늘날 우리 성서학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지적 유산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의 전통이란 비단 성서해석에 얽힌 관점의 차이만이 아니라 신학적, 도덕적, 교리적, 사회참여적 차원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성서해석에 있어서도 접근 방식에서만 아니라 내용 파악에서도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조와 진화에 대한 견해, 성서 각 권의 저자와 연대 결정에 대한 견해, 성서와 과학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견해, 성서 안에 서로 상충되는 기사가 있는 것에 대한 입장 등이 바로 그런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이다. 성서 본문의 저자와 연대 문제에 관련된 견해 차이도 성경 66권 전부를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경우 오경과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서 특히 그런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음의 예는 무엇이 해설 성서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서를 열심히 읽는 독자들은 성서 이야기나 성서의 글 가운데 서로 상충되는 사항을 만났을 때 아주 궁금해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설 성서의 노트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가령 ‘누가 골리앗을 죽였는가’와 같은 질문은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는 물음이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된 성서적 증언부터 들어보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처죽했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삼상 17:50-51).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 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베를 채 같았더라 (삼하 21:19; 비교 대상 20:5).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은 사무엘상 17:50과 관련된 단락 요약, 난하주, 그리고 사무엘하 21:19의 난하주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삼상 17:50의 단락 요약) 삼하 21:19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다. 거기에 따르면 골리앗을 죽인 자는 다윗의 용사 중의 한 사람인, 야레의 아들 엘하난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하난이 다윗의 개인적인 이름이었다고 본다.

(삼상 17:50 난하주) 삼하 21:19에 따르면(단락 요약을 보라), 골리앗을 죽인 자는 야레의 아들 엘하난이다.

(삼하 21:19의 난하주)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죽였는데. 히,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 하난은 가드 골리앗을 죽였는데”. “야레오르김”은 “야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삼상 17장에 의하면, 골리앗을 죽인 자는 다윗이다. 대상 20:5의 저자는 사무엘상과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를 죽였다고 전하는 사무엘하 사이의 모순을 피하고 있다(대상 20:5를 보라).

23) 공시적(共時的), 무시적(無時的), 반시적(反時的)이라는 용어는 시미안 요프레 위음, 박요한 영식 옮김, 『구약성서 연구방법론』 성서와 함께 총서 1 (서울: 성서와 함께, 2000), 5-8에서 인용한 것이다.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은 사무엘하 21:18-19에 대한 해설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적고 있다.

...히브리어 본문 19절에서는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삼상 17장과 어긋난다. 이 때문에 더러는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윗의 승리로 간주되었으리라 추측하기도 한다. 대상 20:5에서는 엘하난이 죽인 사람을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라고 함으로써 이 같은 긴장을 해소하려 한 듯하다. 이를 따라 개역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본디 없는 ‘의 아우 라호미’를 여기에 작은 글씨로 적어 넣은 듯하다.

반면 『뉴톱슨 관주 주석 성경』의 사무엘하 21:19의 난하주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골리앗의 아우 라호미)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아우 라호미’가 생략되어 있다. 이 본문만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기사와 모순되게 된다(참조, 삼상 17:49, 50). 그런데 대상 20:5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아우 라호미’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골리앗’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성서해석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수용하는 『굿뉴스 스테디바이블』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의 해설은 이 문제를 성서 본문의 전승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기관 오류나 파손된 본문이라는 입장에서 본문끼리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솔직하게(!)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성서해석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뉴톱슨 관주 주석 성경』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는다. 대개 성서해석의 보수적인 입장은 보통 성서의 문자적 해석을 해석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예와 같은 문제를 만나면, 기존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본문의 이차적인 의미를 본문의 뜻으로 앞세우려고 한다. 성서본문에 아무런 오류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신앙적 견지가 앞선 결과이다. 사무엘하 21:19에 대한 『뉴톱슨 관주 주석 성경』의 해설이 바로 이런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성서 안에 상충되는 기사에 대한 해설 성서들끼리의 서로 다른 해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필자는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다름”을 우리 한국 교회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려고 한다. 필자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확일적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 하나 됨 속에서의 다양성!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하나 되는 삶의 밑그림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우리가 제작하는 해설 성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무슨 소리인가? 한 권의 해설 성서에 모든 다양성을 다 반영하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²⁴⁾ 하나의 해설 성서에는 그 책 고유의 개성과 특성, 해석학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여러 해설 성서들이 각각 우리 교계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다양성과 하나 됨을 동시에 갈무리하게 되는 수확을 덤으로 얻게 되지 않을까?

해설 성서는 참고서이다.²⁵⁾ 이것은 독자들이 성서를 읽다가 참조할 만한 사항을 만났을 때 그 때마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설 성

24) 비교, Armando J. Levoratti, "Some Difficulties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a Study Bible," 9-13.

25) 이 책에 실린 류호준, “『현대 영어 성경』 본문에 기초한 스테디 바이블(러닝 바이블)에 대한 소개 및 평가”(pp. 83-96)도 해설 성서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도구이지 결코 성서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는 결코 교과서가 아니다. 해설 성서의 저자나 집필자는 자기 독자들이 해설 성서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모든 해설을 읽어왔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개론이나 서론적 안내를 읽은 독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해설상의 안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필요한 구절에 대한 해설과 해석만을 얻으려고 하는 독자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해설 성서의 독자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해설 성서에 접근하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의 해설 성서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해설 성서와 해설 성서끼리는 서로 보완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해설 성서의 집필자나 독자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다. 모든 해설 성서는 서로 다 보완적일 수밖에 없다. “보완적”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끼리 합쳐져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해설 성서의 독자는 성서 본문에 압도되어야지, 본문을 해설해 놓은 해설에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 독자는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설 성서의 해설 노트가 성서 본문보다 커 보여서는 안 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는 세례 요한의 말은 성서 본문과 해설 성서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과서는 성서이고 해설 노트는 참고서일 뿐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우리말 해설 성서가 외경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한다. 해설 성서가 성서를 해설하는 책이라면, 차체에 외경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감출수록 궁금증이 커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발간하는 해설 성서에서만큼은 신약약 중간기 문헌에 대한 소개가 첨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 만약 외경을 해설 성서에 소개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러면서 외경을 정경과 구분되는 정경적 위치를 표시해 놓기를 원한다면, 신약 다음에 부록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사이에 끼워 놓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본다. 외경은 이미 동방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경에 버금가는 책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해설 성서가 이런 외경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우리 개신교회 독자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 해설 성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 가운데 하나이다.